〈電氣工業篇〉

# 바람직한 果敢한 政府의 支援政策
# 日淺한 成長, 輸入依存 45.2% 不免

李 龍 熙

韓國電氣工業協同組合 專務理事

世界經濟는 美國을 비롯한 日本등 先進國들의 景氣가 지난 83年 以來 徐徐히 回復되면서 84年 上半期에는 前例없는 高度成長을 이룩했다.

그러나 下半期에 들어와 世界經濟回復의 牽引車 役割을 맡고있는 美國經濟의 成長鈍化로 그동안 全般的인 回復勢가 多少 鈍化되고 있다.

特히 日本의 경우 輸出好調 및 內需增大에 크게 힘 입어 余他國보다 成長勢를 보였으나 역시 鈍化되고 있으며, 유럽의 主要國들도 그동안 勞使紛糾의 영향에서 벗어나 産業, 生産등이 다시 好調를 보이는 양상을 띄었으나 괄목할만한 高成長 추세로는 發展하지 못했다.

우리經濟도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84 GNP 成長率을 7.1% 水準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特히 年初 建築 및 建設部門의 活況과 自動車를 비롯한 家電機器製品등 耐久性 消費財의 急激한 伸張, 그리고 對美 輸出好調에 따른 輸出增加로 一時的인 景氣의 過熱現象을 기록한바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대 輸出地域인 美國의 輸入制限등에 따른 輸出物量 減少와 耐久消費財의 포화상태로 內需가 크게 鈍化되 事實上 지난 여름을 고비로 景氣는 다시 下落하기 始作하여 85年 까지는 이와같은 추세로 이어지리라는 展望이다.

이에 隨伴하여 우리 電氣工業도 決코 例外는 아닌바 國內外的 景氣變動에 매우 敏感한 反應을 나타냈다고 본다.

우리 組合員業体의 電氣工業의 實態分析 結果 上半期는 83年에 比해 約28%의 높은 伸張을 기록했으나 下半期에 들어오면서 9月末現在 約17% 水準으로 漸次 下落勢를 보여 84年中 電氣工業의 實質 伸張率은 10%선에서 그칠 展望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電氣工業은 日淺한 歷史에 比해 事實上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한 것은 韓國電力公社等 主要 需要處의 每年 所定의 計劃購買와 꾸준한 海外受注 活動, 特히 最近 國際原資材價格의 安定추세에 힘 입어 大多數 企業이 比較的 安定된 事業을 營爲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發展過程에 反해서 素材 및 部品工業의 落後性은 電氣機器 製品의 品質水準 向上에 많은 阻害要因이 되어 國際競爭力을 크게 向上시키지 못하는 動機가 되고 있다.

또한 電氣工業은 他分野에 比해 製品의 開發 및 普及에 相對的으로 많은 時間과 資金이 所要되며 投資에 대한 懷姙期間 역시 長期的인 特性 때문에 日淺한 成長過程이 낮은 資金과 技術蓄積의 不足등으로 아직도 45.2%('83末기준)의 輸入依存을 免치 못하고 있다.

최근 先進國들의 技術水準은 더욱 加速化되어 가는 추세이며, 特히 日本은 國內外 經濟活動이 深化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電氣工業의 成長은 新製品의 開發과 競爭力强化등을 通해 日本經濟를 主導해 가고 있다. 이러한 先進國들의 成長배경은 70年代

에 新製品開發, 新工程技術의 導入 「러시」가 이루어져 技術部門이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0年代에 들어와서 省資源, 省에너지化의 技術革新이 일게되어 電氣工業界의 企業存續과 發展圖謀를 위해 製品開發을 通한 需要確保, 收益性維持뿐 아니라 價格競爭力 向上등 漸次 技術革新 自体가 企業間, 主要한 競爭對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一部 大企業과 中堅企業의 추세이며 大部分 群小 메이커들의 企業生態는 위와같은 技術革新 風土造成을 外面하는 傾向이 있어 大体的으로 技術水準이 매우 脆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內需市場의 狹少로 于先 受注確保에 따른 企業의 安定稼動이 保障 안된 탓이 主要因이겠고,

또한 政府에서 開發品目에 대한 選定未備와 技術開發을 자극하지 못한 產業政策때문에 企業이 技術開發을 주저하고 있는 點이다.

그래서 政府는 電氣工業의 發達없이는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不可함을 감안, 84年中에도 多角的인 支援施策을 펴온 것이다.

要約하면,

① 產業構造의 底辺擴大를 이루고 있는 中小企業發展을 위해

△ 中小企業固有業種의 擴大支援

△ 專門化, 系列化와 함께 企業의 競爭力 培養을 위한 輸入自由化의 漸進的 推進('84電氣 機器 輸入自由化率 73.2%)

△ 系列企業間 協助增大誘導

② 品質 및 技術水準提高

技術集約度 上昇추세에 따른

△企業의 研究開發投資의 增大誘導

△ 脆弱技術의 重點指導 및 解決

△ 先進技術導入의 積極권장

③ 輸入代替 및 國產化推進

自給度(54.8% : '83末기준)向上을 위해

△ 所要資材의 國產可能 與否 事前檢討制 계속

△ 國產機械購買 促進强化

△ 基礎素材의 品質提高를 위한 鋼材, 絶緣材 등 基礎素材의 品質向上誘導

④ 輸出促進支援

各國의 保護貿易政策등 무역장벽을 克服하고 持續的인 輸出增大를 위해

△ 現地合作投資의 檢討

△ Plant輸出推進등 地域特性에 따른 進出對策 樹立推進

△ 市場開拓

△ 大型프로젝트의 경우 延拂輸出金融利用 擴大

△ 內需販賣爲主 品目의 輸出誘導와 組合의 團体隨意契約品 配定에 輸出實績의 연계유도 등

위와 같으나 앞에서 指摘했듯이 電氣工業이 自給自足해야 할 基幹產業인 점과 輸出展望도 밝은데 反해서 支援政策은 多少 微溫的이라 思料되며 余他產業의 均衡發展에서 多少 소외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이는 지금까지 政府가 電氣工業이 輸出등 그規模가 작다는 이유로 電子工業처럼 育成基金을 造成하여 重點支援하는 등의 獨立된 支援策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

*